

영광 불갑산 불갑사 일원 ‘명승 지정’ 예고

문화재청, 국가지정유산
불교문화유산 등 가치 ↑

문화재청은 ‘영광 불갑산 불갑사 일원’을 국가지정유산 명승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영광 불갑산 불갑사 일원’은 아름다운 산세 경관을 자랑하는 불갑산과 오랜 연혁을 간직한 천년고찰 불갑사가 조화를 이루는 명승지로 잘 알려져 있다.

‘불갑사(佛甲寺)’는 ‘불교사찰 중 으뜸이 된다’는 명칭이 주는 상징성이 있다. 그 일원의 수많은 불교문화유산은 역사적, 인문학적 가치를 더해준다.

불갑사에 위치한 암자 중 지는 해를 공경히 보낸다는 의미의 전일암(錢日庵), 바다를 배경으로 지는 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해불암(海佛庵)은 서해나조를 조망하는 명소로 뛰어난 경관적 가치를 갖고 있다.

문화재청은 30일 간의 예고 기간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유산 명승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천연기념물인 참나무 군락지와 영광군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상사와 군락지도 포함하고 있어 생태적, 학술적 가치가 있다.

영광=김도윤 기자



불갑산과 불갑사 전경.

광역관광벨트 개발 속도
문체부 사업비 442억 확보
곡성군

곡성군이 문체부 광역관광개발 사업비 442억원을 확보해 ‘인공생태형 산림관광 정원 조성사업’ 등을 본격 추진한다.

곡성군은 문체부가 추진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섬진강기차마을과 연계한 순환·확장형 관광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곡성군은 ‘인공생태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에 334억원을 투입한다.

‘인공생태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은 곡성과 구례, 광양, 경남 하동이 간직하고 있는 고유의 경관과 문화를 토대로 광역관광벨트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섬진강기차마을과 섬진강동화정원을 연결하는 슈퍼트리를 비롯해 이야기 자원을 주제로 미디어가든, 스토리씨드뱅크 등 전시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비 108억원을 투입해 섬진강 기차마을을 시작으로 대항강(보성강)까지 35km 구간을 역사이팅 생태 레저공간으로 구축하는 ‘레저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사업’도 추진한다.

기차마을 유스호스텔을 리모델링 해 ‘섬진강 레일스테이’로 재탄생 시켜 부족한 숙박 인프라를 확보하고 섬진강 레저스쿨 프로그램 운영과 전략적인 마케팅을 통해 섬진강변과 대항강변을 레저의 사이팅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7년까지 관광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일대 관광지를 연계 순환할 수 있는 미니기차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마련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증기기관차와 장미공원으로 대표되는 곡성을 호남권 대표 체류형 관광지 육성하고 섬진강 여행 출발 거점으로 조성해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겨울놀이터’ 무료 개장
눈썰매장·얼음 봅슬레이 등

곡성군은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에서 겨울철을 맞아 지난 23일부터 ‘겨울놀이터’를 개장해 눈썰매장, 얼음 봅슬레이, 컬링장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2월25일까지 휴장일 없이 무료로 운영하는 겨울 체험시설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남녀노소 스릴과 낭만을 맘껏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일부터 ‘불명하며 고구마, 가래떡 구워먹기 체험’을 주말과 공휴일 하루 2회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불명타임 보이는 라디오’ DJ가 전하는 노래와 사연을 듣는 힐링 시간과 크리스마스트리 포토존 조성으로 마을 설레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다.

곡성=김대영 기자



전남도공무원노조 농업기술원지부, 연탄나눔활동

농사활동을 펼쳤다. 농업기술원지부는 매년 독거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에 생필품, 쌀 등을 기부해 왔다.

전남도농기원 제공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농업기술원지부(지부장 김민수)가 연탄 1000장을 구입, 나주시 관내 독거어르신 가구에 연탄나눔

교통공단 교육센터 건립
함평군, 2028년 개원

함평군은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건립사업이 정부 신규 사업으로 확정돼 오는 2028년 함평에 개원한다고 25일 밝혔다.

함평군 대동면 운교리 500-1번지 일원 자연생태공원 내에 건립하는 이번 사업은 2024년 정부 본예산에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함평군은 지난해 11월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사고 감소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임직원 3000명, 전국 52개 조직, 교통안전·교육·방송·운전면허·연구사업을 담당하는 대규모 기관이다.

교통안전 교육센터가 들어서면 공단 임직원 교육은 물론 경찰청 소속 공무원 직무교육 등을 시행하는 교육시설과 교통안전체험 등 체험시설, 트라우마센터 등 치유시설이 마련된다.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함평군은 연평균 약 5만명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의함평군수는 “교통안전교육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공단과 협력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장성군, 올 우수정책 1위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35개 사업 대상 평가·설문조사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 정책 각광

장성군이 올해 추진한 주요 시책 35건을 대상으로 ‘10대 우수정책’을 선정한 결과,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이 1위에 뽑혔다고 25일 밝혔다.

선정 과정에서는 부서별로 제출한 35개 주요사업에 대해 1차 부서장 평가와 2차 전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공정성을 더했다. 군민과 공직자 1600여 명이 올해 우수정책 선정에 참여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성과는 16년 도전 끝에 장성 설립을 확정지은 ‘국립심뇌혈관연구소’가 차지했다.

국립심뇌혈관연구소는 전국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컨트롤 타워로, 심뇌혈관질환 연구와 정책개발을 수행하는 국가 의료기관이다. 남면 나노산업단지 일원 1만 9800㎡ 부지에 국비 1001억 원을 투입해 2027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1만2500명 규모의 고용 유발과 인구 유입, 치유관광과 연계한 치유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민선8기 공약인 ‘대학생 등록금 지원’도 각광받았다. 학기 당 200만 원씩 최대 8학기분 등록금을 지원해 대학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지원 기준은 △30세 이하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C학점 이상 취득해야



국립심뇌혈관연구소가 설립될 장성군 남면 삼태리 일원.

장성군 제공

하며, 보호자가 3년 이상 장성군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이 밖에도 장성군은 초·중·고 입학 축하금과 청소년 수당도 도입했다.

4900억 원 규모 ‘장성 카카오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도 다수의 선택을 받았다. 데이터센터는 데이터 기반 산업에 필수적인 전산 데이터 관리시설이다. 협약에 따라 2024년 착공해 2026년 완공할 계획이며 3만 3000㎡ 규모, 40MV(메가와트)급으로 지어진다. 고용 창출과 첨단산업 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설계와 설비 구축, 운영에 참여한다.

장성 북부권의 보육공백을 해소할 ‘국가철도공단 키즈레일 백양사역 어린이집

건립 공모 선정’도 우수성과로 꼽혔다. ‘키즈레일 어린이집 조성사업’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철도역 유휴공간을 활용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백양사역이 위치한 북이면은 어린이집이 꼭 필요한 지역이다. 북이면을 포함해 북부권 3개 면의 보육을 담당하던 민간 어린이집이 지난 3월 폐원해 학부모들의 고충이 컸다. 해결책을 모색하던 장성군은 앞선 4월 국가철도공단 공모를 신청해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밖에도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 △2025년 전남도민체전 유치 △황룡강 용작교 야간경관조명 설치 △장성·영광·고창군 상생발전 업무협약 △전남 최초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적용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풀 운영이 10대 우수정책에 포함됐다. 전남대표축제 4회 선정에 빛나는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와 개장 1년여 만에 매출 130억 원을 돌파한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 운영은 2년 연속 우수정책에 선정돼 특별순위에 올랐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5만 장성군민과 공직자들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한 덕분에 장성 역사에 남을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면서 “올해의 성과를 주춧돌 삼아, 군민이 참다운 행복을 느끼는 희망찬 장성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5면 3D 실감형 체험 공간’ 구축
나주도서관

나주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공공도서관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5면 3D 실감형 동화구연 체험 공간’을 구축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5면 실감형 동화구연 체험 공간’은 천장을 제외한 바닥과 벽면 전체에 반응형 인터랙션 장치를 설치해 어린이들이 벽을 만지거나 바닥을 밟는 동작으로 콘텐츠와 실시간 상호작용하며 즐기는 3D 실감형 체험관이다.

나주도서관은 ‘세상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구축하고 어린이들이 책 속 여행을 떠나는 내용을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결합해 전달한다. 동화구연 체험은 내년 3월부터 지역 유치원과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나주=조대봉·박승엽 기자